

제47회 차량손해사정사 2차 시험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총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출제 빈도는 전반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중급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습자님들의 경우, 평균 70~85점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분도, 다소 어려워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신 분이라면, 5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문항은 잘 서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의 점수 차를 만든 문제는 2번 문항(VDC), 4번 문항(저전압배터리 충전), 7번 문항(자율주행차 ADAS와 주요 센서 3가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했을 5번 문항(듀얼연료분사시스템)과 6번 문항(LED)은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똑같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합·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7번 문항은 모두 우리 강의 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들으로써, 긴 문장을 쓰기보다, 정확한 이해와 이론으로 서술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당황스럽게 한 5번 문항처럼, 누구나 잘 서술했을 것이기에 합·불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 번 47회 시험에서는 도장, 용접, 타이어, 대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특히 도장 분야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굳이 도장 문제를 적었다면, 3번 문항(외판패널 판금수리 작업공정)에서 “방청”에 관한 내용을 조금 적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6년간 도장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비 차량 손해사정사 여러분,

더운 날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 7. 28. 윤조현 드림